FX Market Daily

2026-06-18

전일동향

전일대비 1.80원 상승한 1,513.40원에 마감

17일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0.80원 상승한 1,512.4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미국 FOMC 정례회의 결과 발표를 앞둔 경계감 속 외국인 투자자의 4거래일 만에 나타난 주식 매도세에 소폭 상승하며 전일 대비 1.80원 상승한 1,513.40원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 장중 변동 폭은 6.4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41.89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512.40	1515.50	1509.10	1513.40	1512.80
엔화	941.96	946.72	940.81	941.89	-
유로화	1754.54	1759.67	1736.93	1740.42	-

* 시가/고가/저가/종가: 달러는 익일 06:00(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56	-3.43	-7.36	-15.03
결제환율(수입)	-0.29	-2.11	-5.09	-11.46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매파적 FOMC에...1,52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2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513.40) 대비 12.65원 상승한 1,524.85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매파적 FOMC에 따른 강달러와 위험회피 심리에 상승 전망한다. 미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첫 FOMC 회의에서 연준은 정책금리를 3.5~3.75%로 만장일치 동결했지만,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매파적 결과로 마무리되며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도 강세를 나타냈다. 성명서는 이전보다 짧고 단순해졌고, 경기와 고용에 대한 평가는 견조하게 유지되었으나, 물가는 여전히 2% 목표를 상회하고 있어 위시 의장이 이를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강화되었다. 또한, 그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정보 제공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도 시장의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해 금일 환율은 상승세로 출발할 전망이다. 여기에 국내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 순매도세가 전일에 이어 지속될 경우 추가 상승 압력 받을 수 있다.
다만,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과 수출업체의 고점 매도 물량 유입 가능성은 상단을 제한할 전망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517.33 ~ 1531.67 원

체크포인트

-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9951.69 억원
-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2.65원↑
- ■ 美 다우지수 : 51492.55, -507.12p(-0.98%)
-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26.11 억달러
-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5566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